

전남교육청, '등교수업 확대 따른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에 따라 학교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학생 수 90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등교수업을 늘리기로 했다.

단, 900명 이상 과대학교는 등교 학생 수 3분의 2 이하를 유지하도록 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특별 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고 12일 밝혔다.

학교의 준비 기간(2020.10.12.~2020.10.16.)을 거쳐 12일 이후부터 학교별 상황에 따라 1단계 등교방식이 적용된다.

오는 19일부터 학생 수 900명 이하 학교 대상 과대학교, 3분의 2 유지... '학력격차 해소' 당부

이 방안에 따라 전남도내 전체 학교(822개) 중 900명 이상 과대학교인 초등 19곳을 제외한 803곳(97.7%)이 오는 19일부터 등교수업을 확대하게 됐다.

또한, 도교육청은 900명 이상 학교라 하더라도 지역상황이나 학년, 학생 수 등을 고려해 교직원과 학부모, 지자체와 협의해 등교수업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 8월 21일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2단계에 따라 그동안 유·초·중은 전교생의 3분의1 이하, 고등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2 이하로 등교인원이 제한됐다. 다만, 학생 수 60명 이하 작은 학교와 농산어촌 소재 학교는 이 조치에서 제외돼 지금까지 전남 도내 전체 학교의 70%가 전체 등교수업을 이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 현장에서는 '면대면 등교 수업 확대'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2학기에도 원격, 등교수업 병행이 이어지고,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력격차 심화 및 학생생활 지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원격수업 학생상호작용활용 강화, 개별지도 지원, 콘텐츠 활용 자료 제작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교육청은 이번 학사운영 방안 안내 공문을 통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생 다중시설 이용 자제 생활지도,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철저 준수를 당부했다.

또, 면대면 설명회 및 연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학생 수련장, 공공도서관·평생교육관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필요한 회의나 행사, 특히 학생수련 프로그램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의 학력격차 해소와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교육적 열정과 사랑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환기자

청암대학교, 혁신지원사업 학생모니터링단 발대식 개최

3개 영역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담당 영역 성과 홍보하는 역할

청암대학교(총장 서형원)는 최근 '혁신지원사업 학생모니터링단 1기 발대식'을 청암관 1층 회의실에서 가졌다.

학생모니터링단은 학생들의 눈으로 대학의 모습을 바라보고,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미래가 더 큰 청암인을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학생모니터링단 1기로 선정된 8명의 학생들은 11개의 추진전략에 따른 교육혁신, 산학협력혁신, 기타혁신 3개 영역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거나 담당 영역의 성과를 홍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 날 발대식은 혁신지원사업단 부단장(김현나 교수)의 사회로, 청암대 총장 인사말, 학생모니터링단 역할 소개, 위촉장 수여, 학생모니터링단(1기) 자기소개,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다.

정경석 혁신지원사업단장은 "청암대학교

혁신지원사업의 목표는 우리 대학 학생들이 능력을 갖춘 미래 인재가 되도록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모니터링단은 청암대 학생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하고, 어떤 기회가 있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우수한 인재들과 우리 대학의 미래를 가꿀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어 흐뭇하다"고 말했다.

혁신지원사업 학생모니터링단 1기로 선발된 학생들은 간호학과, 응급구조과, 호텔관광서비스과, 사회복지과 학생들로 구성되었으며, 기획, 편집, 홍보 등의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능력 있는 인재들로 선발되었다.

학생모니터링단에 선발된 간호학과 한은성 학생은 "혁신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소통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맞게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1기 학생모니터링단은 2차년도 혁신지원사업이 종료되는 2021년 2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모니터링하고 SNS를 통해 대내·외로 홍보하기 위해 기획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대학구성원 간의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로 대학혁신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며, 더불어 자발적인 학생 참여 활동을 통해 재학생들의 애교심 및 자긍심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주 월산초, 한글날 기념 계기교육 성료

162명 대상, '나라사랑 인문강좌'

광주월산초가 광주국학원과 연계해 5~8학년 동안 2~6학년 학생 162명을 대상으로 한글날 기념 계기교육 '나라사랑 인문강좌'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나라사랑 인문강좌'는 광주국학원(2014년 대한민국 교육기부 우수기관 선정)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민족 고유의 역사·문화·철학 등에 관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광주국학원 소속 강사들을 초청해 실시됐고, 한 학급당 80분 동안 진행됐다.

2~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우리말의 참 의미를 통한 바른 인성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말 이야기'를 주제로 계기교육이 진행됐다.

4~5학년 학생들의 경우 김구·윤봉길·안중근·홍범도 등 위인들의 삶과 정신을 통해 삶에 대한 기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인성영재 독립운동가 이야기'를 주제로 교육이 실시됐다. 6학년 학생들에게는 주요 국경일의 역사적 배경 등을 통해 바른 국가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나라사랑 국경일 이야기'를 주제로 계기교육을 실시했다.

광주국학원 소속 김경아 강사는 "학생들이 한글날 기념 계기교육 '나라사랑 인문강좌'를 통해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우리말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배워 바른 국가관·민족관이 형성되길 바란다" 말했다.

광주월산초 2학년 한 학생은 "똑같은 밭에 게 좋은 말과 나쁜 말을 각각 했는데 좋은 말을 한 밭은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생겼고, 나쁜 말을 한 밭은 검은 곰팡이가 생겨 놀라웠다"며 "앞으로는 나쁜 말은 하지 말고 좋은 말만 사용해야겠다"고 말했다.

광주월산초 유은경 교장은 "학생들은 한글날 기념 계기교육 '나라사랑 인문강좌'를 통해 한글·무궁화·아리랑 등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 유산을 역사 속 위인들의 삶과 연결해 살펴볼 수 있었다"며 "한글날을 맞아 국경일 속에 숨은 정신을 살펴보고, 위인들의 삶을 통해 개인과 국가의 자긍심을 일깨우는 참된 삶에 대한 롤모델을 제시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조인호기자

무안아라해제 마을학교, 농촌지역만들기 우수사례 인정

주민들 공유공간 플랫폼 구축...지역민 대상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제7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농촌지역개발 분야에서 해제면 주민다목적센터가 은상(시상금 5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해제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으로 준공된 이 센터는 인근 주민들의 공유 공간 플랫폼을 구축하여, 헬스장 운영, 성인문해 교육, 영하프로그래밍 상영 등 지역민 대상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란)과 무안군청(군수 김삼)의 지원 속에 운영 중인 아라해제 마을학교는 푸드테라피, 전통문화 이해, 독서교육, 방과후 학습방 등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마을학교는 윤홍석 해제면 주민다목적센터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회와 학부모 공동체

인 '빛솔교육공동체'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협력하여 운영하면서 학교와 마을이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박미래 아라해제 마을학교 대표는 "앞으로도 이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함께 협력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마을학교가 되었으면 한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무안교육지원청 김란 교육장은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무안=이기성기자

